<2019학년도 경희대학교 오프라인 모의논술고사>

출 제 개 요 (인문·체능계)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상호 작용하는 세계화 시대, '문화 변동의 다양한 양상(융합, 공존, 동화 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주제로 한 종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평가

2019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고사 인문체능계열 문제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상호 작용하는 세계화 시대, '문화 변동의 다양한 양상(융합, 공존, 동화 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주제로 한 종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내용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문화 변동의 양상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가 상호 작용하는 우리 시대의 복잡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화 변동의 다양한 양상은 사회문화, 문학, 세계지리, 세계사 등의 현행 고교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세계화는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심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화로 인해 과거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던 정치, 경제, 사회 활동의 범위가 전 지구적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문화도 세계화의 흐름에 예외가 아니다. 이질적인 문화 간의 접촉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행이나 유학, 이민 등을 통해 다른 문화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찾아온 여행객, 유학생, 이주민을 통해 다양한 언어와 종교, 식생활을 접하기도 한다. 또한 뉴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거의 동시간대에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제 한 문화가 다른 문화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는 다른 문화와 교류하는 가운데 변화하면서 발전한다. 본 논술고사에서는 이러한 시대 현실을 염두에 두고, 문화 변동의 다양한 요인과 양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제 I>은 두 제시문이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를 파악한 후, 제시문 간의 주요한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요약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출제됐다. 문화는 다양한 문화요소의 상호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특히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문화와 접촉함으로서 새로운 양식의 문화로 변화할 수 있는데, 제시문 [가]와 [나]는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변동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가]는 한 사회의 문화가 지배적인 외래문화 속에 흡수되어 토착 문화 요소가 약해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문화 동화 현상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나]는 기존의 문화 체계가 새로운 문화 체계와 접촉한 후 두 문화가 서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함께 존재하는 문화 공존의 모습을 보여준다.

<논제 Ⅱ>는 제시문 [바]의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서 제시된 상황을 평가하는 문제로, 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제시문 [바]는 동방의 문화 전통과 서방의 예술 전통이 결합하여 새로운 간다라 미술의 탄생을 보여주는 문화 융합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대표적인 멕시코 음식과 스페인 음식이 사실은 문화 융합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문 [바]의 문화 융합의 사례와 그 관점이 일치한다. 제시문 [라]는 안개와 나뭇잎의 평화로운 공존을 형상화한 시다. 이 둘의 공존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되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제시문 [바]의 문화 융합과는 달리 문화 공존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마]는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의 노동 현장에서 강요에 의한 동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바]의 문화 융합의 관점에서 볼 때 제시문 [마]는 지배 문화에 의한 타자에의 문화 동화라는 점에서 서로 상반된다.

[제시문 출처]

[가] 칼 슈미트, 김남시 역, 『땅과 바다』, 꾸리에, 2016, 84-87쪽.
[나] 고아라, 「예루살렘 올드시티로의 시간여행」, 『트래비 매거진』299호, 2017. 1.
[다] 권동희 외, 『고등학교 세계지리』, 천재교육, 2013, 128-129쪽.
[라] 김신용, 「부빈다는 것」, 『부빈다는 것』, 천년의 시작, 2009, 195-196쪽.
[마] 김재영, 「코끼리」, 『코끼리』, 실천문학사, 2005, 24-26쪽(우한용 외,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과서, 2013, 360-365쪽).
[바] 이주형, 『간다라 미술』, 사계절, 2003, 23-25쪽.

2019학년도 오프라인 모의논술 예시답안(인문·체능계)

논제 I

문화는 다양한 문화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특히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문화와 접촉함으로서 새로운 양식의 문화로 변화할 수 있는데, 제시문 [가]와 [나]는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변동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가]는 한 사회의 문화가 지배적인 외래문화 속에 흡수되어 토착 문화 요소가 약해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문화 동화 현상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나]는 기존의 문화 체계가 새로운 문화 체계와 접촉한 후 두 문화가 서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함께 존재하는 문화 공존의 모습을 보여준다.

두 가지 변동양상의 사례로서, [가]는 비유럽 민족들에게 서양적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유럽문명이 전해지면서 그들 고유의 토착 문화가 사라지고 서양 문화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역사를 제시한다. 르네상스시기에 유럽에서 탄생한 새로운 공간개념과 그로 인한 국가와 군대와 기계의 혁신이 비유럽 민족들로 하여금 유럽의 문화요소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했다는 것이다. 반면 [나]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아르메니아 정교가 그들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예루살렘을 소개한다. 독자적인 개성을 지닌 이들 종교는 전쟁과 아픔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올드시티' 지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을 지키면서 나란히 존재하고 있다. (668자)

논제 Ⅱ

제시문 [바]는 동방의 문화 전통과 서방의 예술 전통이 결합하여 새로운 간다라 미술의 탄생을 보여주는 문화 융합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간다라 미술은 수 세기에 걸친 동양과 서양의 접촉 속에서 생겼다. 동양적 요소들은 다시 서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민족적, 문화적 요소들이 섞였고 서양적 요소들은 헬레니즘과 로마풍 등의 요소들이 섞였다. 결과적으로 간다라 미술이라는 혼성 미술의 발달은 서로 이질적인 종교적, 문화적, 인종적 요소들의 만남에 의한 탁월한 문화 융합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다]는 대표적인 멕시코 음식과 스페인 음식이 사실은 문화 융합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음식인 토르티야와 타고는 아즈텍 문명의 재료들과 스페인 군대가 자국에서 가져온 재료들이 융합되면서 만들어졌다. 한편 스페인의 파에야는 과거 이슬람의 지배를 받을 때 들여온 쌀과 샤프란과 스페인의 풍부한 해산물이 결합된 음식이다. 따라서 제시문 [바]의 문화 융합의 사례와 제시문 [다]의 문화 융합의 사례는 그 관점이 일치한다.

제시문 [라]는 안개와 나뭇잎의 평화로운 공존을 형상화한 시다. 이 둘의 공존은 화학적 결합이나 융합에 의해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이웃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되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제시문 [바]의 문화 융합과는 달리 제시문 [라]는 문화 공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마]는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의 노동 현장에서 강요에 의한 동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한국 노동자와 현재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어라는 지배적 언어로 소통하며 노동 현장의 열악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 노동자는 열악한 한국 노동 현장에 타자인 이주 노동자가 동화 또는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주 노동자는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바]의 문화 융합의 관점에서 볼 때 제시문 [마]는 지배 문화에 의한 타자에의 문화 동화라는 점에서 서로 상반된다. (1036자)

논 술 채 점 기 준 표 (인문·체능계)

1. 점수 배정

① 만점 : 각 논제 당 100점(두 논제 도합 200점)
② 기본 점수 : 60점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③ 기준 점수 :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0점)

2. 채점 기준 :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① 띄어쓰기를 포함한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백지이거나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해당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2) 원고분량에 따른 감점
① 원고분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서술 내용을 중시)
② 아래의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
③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논제 I> (601자 이상～700자 이하)
400자 미만: 감점 30점
500자 미만: 감점 20점
500자 이상～550자 미만: 감점 10점
750자 이상～800자 미만: 감점 10점
800자 이상: 감점 20점

● <논제 Ⅱ> (1001자 이상～1100자 이하)
700자 미만 : 감점 30점
800자 미만 : 감점 20점
800자 이상～850자 미만: 감점 10점
1150자 이상～1200자 미만: 감점 10점
1200자 이상 : 감점 20점

3) 원고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을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한다.
③ 주어진 필기도구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간주한다.(예; 연필로 작성한 부분은 무효 처리)

3. 채점 기준 : 내용평가

1) <논제 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① 제시문 [가]의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면 10점 가점
② 제시문 [나]의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면 10점 가점
③ 제시문 [가], [나] 논지의 차이가 잘 드러나게 서술하면 10점 가점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창의성 및 표현력 등을 중시)

※ 채점시 유의사항

(1)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파악해서 요약하고 그 논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높게 평가를 한다. 제시문 [가]와 [나]는 문화 접촉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변동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가]는 한 사회의 문화가 지배적인 외래문화 속에 흡수되어 토착 문화 요소가 약해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문화 동화 현상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나]는 기존의 문화 체계가 새로운 문화 체계와 접촉한 후 두 문화가 서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함께 존재하는 문화 공존의 모습을 보여준다.
(2) 각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요약과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는데,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보다는 얼마나 자신의 언어로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였는가를 중요시한다.

2) <논제 Ⅱ>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① 제시문 [바]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 서술하면 10점 가점
② 제시문 [다]의 관점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10점 가점
③ 제시문 [라]의 관점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10점 가점
④ 제시문 [마]의 관점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10점 가점
⑤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하였는가를 중시한다.

※ 채점시 유의사항

(1) 제시문 [바]는 동방의 문화 전통과 서방의 예술 전통이 결합하여 새로운 간다라 미술의 탄생을 보여주는 문화 융합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간다라 미술은 수 세기에 걸친 동양과 서양의 접촉 속에서 생겼다. 동양적 요소들은 다시 서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민족적, 문화적 요소들이 섞였고 서양적 요소들은 헬레니즘과 로마풍 등의 요소들이 섞였다. 결과적으로 간다라 미술이라는 혼성 미술의 발달은 서로 이질적인 종교적, 문화적, 인종적 요소들의 만남에 의한 탁월한 문화 융합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제시문 [다]는 대표적인 멕시코 음식과 스페인 음식이 사실은 문화 융합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음식인 토르티야와 타고는 아즈텍 문명의 재료들과 스페인 군대가 자국에서 가져온 재료들이 융합되면서 만들어졌다. 한편 스페인의 파에야는 과거 이슬람의 지배를 받을 때 들여온 쌀과 샤프란과 스페인의 풍부한 해산물이 결합된 음식이다. 따라서 제시문 [바]의 문화 융합의 사례와 제시문 [다]의 문화 융합의 사례는 그 관점이 일치한다.
(3) 제시문 [라]는 안개와 나뭇잎의 평화로운 공존을 형상화한 시다. 이 둘의 공존은 화학적 결합이나 융합에 의해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이웃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되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모

습이다. 따라서 제시문 [바]의 문화 융합과는 달리 제시문 [라]는 문화 공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 제시문 [마]는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의 노동 현장에서 강요에 의한 동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한국 노동자와 현재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어라는 지배적 언어로 소통하며 노동 현장의 열악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 노동자는 열악한 한국 노동 현장에 타자인 이주 노동자가 동화 또는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주 노동자는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바]의 문화 융합의 관점에서 볼 때 제시문 [마]는 지배 문화에 의한 타자에의 문화 동화라는 점에서 서로 상반된다.